



部品国産化에 의한 販賣基盤 확충

趙 錫 九 / 東原電子(株) 社長·本會 理事

벌써 丙寅年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한해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연간 經營実績을 좀더 좋게 達成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86年度를 보내는 지금의 마음으로는 한사람의 經濟人으로서 금년도는 모든 企業人에게 對外 与件이 매우 좋은 한해였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年初부터 3低 즉 油價 폭락, 국제金利 하락, 그리고 美国 달러화의 약세 등 세가지 主要 經濟 현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展開되어 우리나라는 금년도 수출이 약343억弗, 수입이 약305억弗로 예상되어 史上 최초의 貿易収支 黒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經濟의 貿易黒字 元年을 기록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영향으로 우리 經濟는 11%의 高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予想되며 또 國際的인 行 事로는 제10회 亞細亞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30億아시아인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88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國家로서 世界人의 관심이 유난히 우리 한반도에 집중된 한해이었다. 물론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게 된 우리 經濟가 日本에 대하여 오히려 貿易赤字 폭이 커진 것은 高度成長에 가려진 우리 經濟의 취약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外部 환경은 이렇게 우리 企業人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展開되었다.

우리 電子業界는 한해동안 어떤 經營을 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년도 電子電氣部門 總輸出 60억 5,000만弗 목표에 연말까지 약 75억弗이 예상되어 目標보다 훨씬 높은 実績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금년도 電子電氣部門이 韓國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로 작년 16.2%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전년도 電子部門 輸出額 49억弗과 비교해서 53% 늘어나는 高成長을 보이고 있다.

한편 電子部門의 總生産額도 전년도보다 약 44% 증가한 120억弗에 달할 것으로 보며 國內 全體의 電子業種은 상당한 成長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結論的으로 電子部門에 있어서는 全般的으로 매우 좋은 經營指標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本人이 經營하고 있는 業種인 Audio 分野를 살펴보고 우리 會社는 어디에 力點을 두고 經營을 해 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Audio 분야도 全體 景氣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全世界의 Audio市場을 日本이 약 90%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엔화에 대한 상대적 競爭力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輸出의 경우 수주를 받기보다는 生産을 하지 못

해 販賣를 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단, 고성장의 이면에는 일부 부품을 日本에서 輸入하여 사용하고 있는 Audio業界의 各社들이 다소 저하되었으며 일부기업에서는 실제로 技術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는 外國 브랜드 사용을 위한 技術導入에 대한 로얄티 支給으로 더욱 더 곤욕을 치루기도 하였다.

한편 國內의 Audio 市場은 20만원대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각사에서 선을 보였으며 리모콘화 및 입체음향효과를 내는 Surround System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또 젊은 층의 저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國內 經濟성장기 매우 높은 점과 비교해서는 売出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当社에서는 이러한 對內 外 環境에 적응하기 위해 어디에 力點을 두고 經營을 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속한 新製品의 開發로 原價上昇에 대처하였다. 작년도 연말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엔화는 專門家들의 予想을 능가하여 評價切上이 되었다. 따라서 일부 부품을 日本에 依存하고 있는 Audio업체에서는 바이어의 價格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평가절상된 환율을 새로이 적용하고 또 Life Cycle이 짧은 Audio製品에 대해 신속히 신모델을 개발하여 供給하

1986年度 電子産業을 總決算한다*

로서 수요의 창출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적 여건인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적극적인 部品國産化 추진이다. 세트업체에서는 건설한 部品業體의 育成없이는 成長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品質의 問題 등으로 꺼려오던 部品國産化를 이번 時期에 추진 함으로써 部品國産化率을 前年對比 약 10%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部品國産化로 系列企業의 育成과 원가절감에 의한 國際競爭力 향상, 그리고 원활한 部品공급에 의한 바이어가 요구하는대로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는 技術向上 및 自動化 設備 설치에 의한 生産性 향상이다. Audio 製品은 多品種 少量生産을 要하는 産業인 만큼 일반 大企業에서 成功하기란 매우 힘든 産業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外國先進諸國의 경우도 Audio 專門業體가 대부분의 Audio 市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Audio 업체가 生産性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東京技術研究所에서 設計에서부

터 가치혁신 제도를 導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生産에서도 자동삽입기 등 가능한 수작업을 자동화 함으로써 회사의 전체적인 生産性 向上을 기할 수 있었으며 또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량률 배제함으로써 品質의 向上을 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經濟水準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企業에서는 더욱 설계 및 生産自動化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業務改善을 기하고 또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전사원이 노력한 결과로 금년도의 외형신장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成長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즈음 電子部門에 있어서는 技術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企業體들이 高附加價值 産業쪽으로 企業變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当社에서도 첨단 技術分野에 참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輸出部門에 컴퓨터 주변기기인 CRT 모니터를 생산하여 금년도 輸出実績이 약 1,000만弗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企業의 構成要素가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 모든 製品을 生産하는 체제에서 탈피해 규모가 큰 것은 大企業 중심으로, 規模가 작은 部門에 대해서는 中小企業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産業構成이 재편성되어 서로간의 원활한 協力關係를 구축한다면 對外的으로도 競爭力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986년도는 특히 아시아 안게임이 성공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특히 同社가 아시아 게임의 Hi-Fi 부문 공식공급업자로 후원해 준데 대해 아시아 게임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하는 바람이다.

電子部門이 今年度の 國家經濟 成長을 훨씬 웃도는 약 40% 이상의 成長을 이룩한 것과 또 國內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약 21%가 된 것은 모든 電子人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電子人들이 國內經濟를 이끌어 갈 主役이 될 것이라는 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電子工業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電子人들에게 幸福과 幸運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